

2019 마포 정치 경제를 전망한다

마포유수지내 복합문화공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큰 호응속에 열린 장학재단의 후원 음악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은 근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시설안전팀이 관리하는 종합청사, 우리마포, 창업복지관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실시하였다. 공단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점검일로 정하고 화장실의 변기, 화장지케이스와 전등 및 배기그릴 등 숨기기 쉬운 취약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특히 위험요소인 못자육이나 흠집은 실리콘 등으로 즉시 제거하며, 점검 중 고장시설물 보수 조치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불법촬영카메라 예방점검을 위해 시설안전팀 관리시설 뿐 아니라 공단이 관리하

는 모든 시설로 확대 시행하여 불법촬영카메라 예방점검 체계 구축 및 불법촬영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안심화장실 인식개선은 물론 “최우수 공기업” 그 이상의 고객가치와 성과를 향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